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Vol. 57 No. 3, September 2024, pp.202~222.
Copyright©2024,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4.57.3.202

세계유산 사례를 통해 본 전쟁 유산의 의미 해석

이제이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원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Corresponding Author: jssung@snu.ac.kr

국 문 초 록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사건 중 하나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파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쟁과 관련된 문화유산에 대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전쟁 관련 유산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폭넓게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18건의 전쟁 유산 사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례는 '전쟁의 물리적 흔적과 군사적 요새', '전쟁과 잔혹 행위의 기억 및 평화의 메시지',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의 복구와 재건'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쟁 유산은 단순히 전쟁의 물리적 증거에 그치지 않으며, 전쟁의 기억과 트라우마, 상흔과 치유, 갈등과 화해 등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쟁 유산이 전쟁의 물리적 흔적을 넘어 평화의 가치를 담지하는 '평화유산'의 의미로 확장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이는 전쟁의 아픈 기억을 직시하는 동시에 이를 평화 구축의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며, 나아가 전쟁 유산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전쟁 관련 유산에 대한 학술 담론을 심화하고, 전쟁과 관련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주제어 갈등유산, 부정적 유산, 불편유산, 평화유산, 전쟁기억

투고일자 2024. 6. 20. | **심사일자** 2024. 7. 18. | **게재확정일자** 2024. 8. 7.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Ⅰ. 머리말

2023년 5월,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Sites of the Busan Wartime Capital)'이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최종 등재를 위한 중요 관문인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다. 전쟁과 관련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세계유산제도의 근본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세계유산제도의 시작은 서구 사회의 근대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7, 18세기의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급격한 사회변화가 일어났고, 20세기에 들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산들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문화유산의 파괴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이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인류 공동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19세기 말 근대적인 문화유산 보존원칙이 태동된 이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참화로 파괴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이코모스(ICOMOS)와 같은 국제기구가 결성(주남희 2020)되었고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세계유산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유산제도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국가 간 이념 대립과 갈등이 완화되면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유산제도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지정하고, 전쟁과 자연재해 등의 위협에서 안전하도록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문화재청 2010: 12).

전쟁은 귀중한 문화유산을 파괴해왔다. 이러한 전쟁의 폐해를 경계하고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쟁 관련 유산을 보존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세계유산제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전쟁 관련 유산에 대한 개념 정의와 유형 분류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전쟁 유산의 범주와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병행하여, 전쟁 관련 유산 자체에 대한 개념적 재정립과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쟁 관련 유산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으며, 연구자들마다 정의한 개념들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가?'와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쟁 관련 유산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적지, 기념물, 건축물 등은 물론이고, 전쟁의 기억과 트라우마가 담긴 다양한 형태의 무형 자산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전쟁 관련 유산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한다면, 이들 유산이 인류의 평화와 화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전쟁 관련 유산에 대한 개념적 · 실천적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먼저 2장에서는 전쟁 관련 유산의 개념과 관련 연구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전쟁 유산', '불편유산', '갈등유산', '부정적 기억유산' 등 다양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문헌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전쟁 관련 유산 개념의 등장 배경과 학술적 논의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미 해석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이론적 · 정책적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세계유산 등재 사례를 통해 전쟁 관련 유산 개념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전쟁과 직접 관련된 대표적인 세계유산을 선정하여 등재 과정에서의 논의와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전쟁 관련 세계유산의 의미와 가치 등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세계유산 사례를 통해 살펴 본 전쟁 유산에 내포된 의미 해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다각도의 문헌 분석과 사례 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전쟁 관련 유산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그 개념적 ·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폭력과 파괴를 동반하는 사건으로, 전쟁으로 인한 유산은 그 자체로 특수성과 중요성을 지닌다. 특히 한국은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그로 인한 분단의 상황 속에 있기에, 한국전쟁이 남긴 유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이 필요하다. 전쟁 유산의 속성과 가치를 밝히는 작업은 학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화해를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전쟁 관련 유산의 범주

전쟁 관련 유산은 주로 '전쟁 유산'으로 불리지만, '갈등유산', '부정적 유산', '불편한 유산'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연구자, 기관, 시대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쟁 관련 유산 자체가 지닌 다양하고 복잡한 성격(차철욱 2018: 150)을 반영한다.

전쟁 관련 유산은 그 자체로 이미 복잡하고 다중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그 범주와 외연 또한 명확히 한정하기 어려울 만큼 광범위하다. 가장 협소한 의미에서 전쟁 관련 유산은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물, 즉 전쟁터, 군사 시설, 전쟁 기념비와 같이 물리적 실체를 지닌 유형적 유산을 지칭한다(최재헌 2022: 7). 그러나 전쟁이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쟁 관련 유산의 범주는 물질적 잔재를 넘어 보다 넓은 맥락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현대전의 총체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전쟁 관련 유산의 범주는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억과 구술 등의 자료 특히, 전쟁 체제 하에서 변화된 일상 생활과 그에 대한 기록,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구술 기록은 비록 물리적 실체는 없더라도 역사의 온전한 실상에 접근하는 데 기여하는 유산으로 볼 수 있다(엄현섭 2019: 365). 이는 전쟁의 기억과 경험을 유지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물리적 유산만큼이나 가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사회구조와 문화의 변동, 이념 대립, 집단 간 갈등 등 전쟁이 야기한 무형의 영향 또한 전쟁 관련 유산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러한 무형의 유산은 물리적 증거로 남아있지 않지만, 사회의 집단 기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Smith 2006: 57~61). 특히 식민 지배, 내전, 독재 등 근현대사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성격의 전쟁과 갈등은 사회 내부에 오랫동안 상처를 남기고, 이는 무형의 기억 유산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쟁 관련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보여주는 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구성되는 대상임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해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이는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유산 개념과 맞물려 특정 집단의 요구에 맞춰 형성된 다양한 유산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전쟁 관련 유산은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이자 담론으로 접근해야 한다(Tunbridge and Ashworth 1996: 8).

결론적으로, 전쟁 관련 유산의 범주를 설정할 때 필요한 것은 단일한 정의가 아니라 '포괄성'과 '유연성'이다. 물질적 형태와 무관하게 전쟁의 영향을 보여주고, 과거를 기억하고 반추하게 하며, 미래를 위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유형과 무형의 자산들을 잠재적인 전쟁 관련 유산으로 포괄하는 유연한 시각이 요구된다.

2. 전쟁 관련 유산 의미 해석의 필요성

전쟁 관련 유산은 오랫동안 문화유산 분야에서 주변부에 머물러 왔다. '문화유산'이라는 용어가 주로 미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 유형적 자산에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이다(Smith 2006: 87~92). 전쟁과 같이 인류에게 고통과 파괴를 안겨준 사건의 산물은 긍정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으로 여겨지기 어려웠던 것이 사

실이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전쟁과 관련된 유산이 세계유산협약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최재헌 2022: 7).

그러나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뗄 수 없는 일부이며, 그 자체로 역사적 교훈과 반성의 대상이 된다. 전쟁 관련 유산은 과거의 폭력과 갈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평화와 화해,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촉구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쟁 관련 유산 개념에 내포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중요하다.

첫째, 전쟁 관련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의미 해석을 통해 전쟁 관련 유산이 단순히 과거의 잔재가 아닌, 현재 세대에게 다양한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유산임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전쟁 관련 유산은 평화의 소중함, 인권의 중요성, 갈등 예방과 해결의 필요성 등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 관련 유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은 평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명확한 개념 정의는 전쟁 관련 유산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산의 조사, 기록, 보존, 관리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쟁 관련 유산은 그 특성상 정치적, 이념적 갈등의 대상이 되기 쉽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훼손되거나 멸실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전쟁 관련 유산의 의미를 토대로 관련 법규와 정책, 전담 기구 등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세계유산 등재를 비롯한 국내외 유산 정책에서 전쟁 관련 유산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동안 전쟁 유산은 부정적 이미지와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종종 세계유산 등재 시 당사국 간의 갈등을 초래해 왔다(이정선 2020: 166).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쟁 관련 유산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쟁 유산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쟁 관련 유산이 국가 간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쟁 관련 유산이 지닌 복합적 가치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학술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전쟁 관련 유산은 단순히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객체가 아니라, 전쟁의 원인, 전개 과정, 사회적 영향, 사후 처리 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텍스트이다(Gegner and Ziino 2012: 123). 또한 전쟁 관련 유산은 한 사회의 집단 기억과 트라우마가 응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억의 장소(Nora 1989: 23)[1]' 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쟁 관련 유산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전쟁의 사회적 메커니즘과 집단 기억의 작동 방식, 트라우마의 세대 간 전이 등 다양한 주제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쟁 관련 유산이 내포하는 다중적인 의미와 그 범위를 고려했을 때, '전쟁 유산'이라는 단일한 용어로는 그 본질과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전쟁 관련 유산의 범주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전쟁 유산'이라는 용어로는 그 본질과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 이것이 전쟁 관련 유산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1 '기억의 장소' 개념은 프랑스 역사학자 피에르 노라(Pierre Nora)가 제시한 것으로 홀로코스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제주 4.3사건과 같이 오랫동안 공식 역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사건들을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재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개념적 틀(박재민 · 홍윤순 2016: 149)이다. 이 개념을 전쟁 관련 유산에 적용하면, 전쟁 유산은 단순한 물리적 잔재를 넘어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의미가 얽힌 '기억의 장소'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전쟁 유산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단순히 물리적 보존을 넘어, 그것이 담고 있는 다층적 기억과 의미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냉전 유산'은 냉전 시대 이념 대립과 군비 경쟁의 산물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냉전 시대에 발생한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유산들은 '전쟁 유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또는 '냉전 유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갈등 유산'은 전쟁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포괄하는 용어이지만, 모든 전쟁 유산이 '갈등 유산'에 속하는지는 모호하다. '부정적 유산'이나 '불편한 유산'은 전쟁 유산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유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전쟁 유산을 단순히 '부정적'이거나 '불편한' 대상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접근 방식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처럼 전쟁 관련 유산을 지칭하는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는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과 강조점, 그리고 시대적 ·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해석되고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전쟁 관련 유산에 대한 개념적 모호성과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적 혼란을 해소하고 전쟁 관련 유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용어를 사용한 해당 연구자들이 제시한 개념 정의와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용어의 선택이나 정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쟁 관련 유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접근법을 이해하고 종합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전쟁 관련 유산 연구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하고, 향후 관련 연구의 개념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에서의 전쟁 관련 유산의 개념적 정의와 특징

전쟁 관련 유산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과제이다.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다양한 관점과 접근 방식이 제시되어 왔다.

먼저 부정적인 역사 및 기억의 장소와 관련된 유산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허수진 2022: 117)고 볼 수 있는 Tunbridge와 Ashworth의 저서(1996)는 전쟁 관련 유산을 포함하여 부정적이거나 논란이 되는 유산을 '불협화음의 유산(dissonant heritage)'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들에 따르면 전쟁은 승자와 패자, 가해자와 피해자 등 상반된 입장과 기억을 남기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유적지, 기념물, 박물관 등은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기억과 해석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기 쉬워 전쟁 관련 유산의 관리와 해석에는 각별한 주의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쟁, 학살, 노예제, 식민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유산을 '상처를 주는 유산(heritage that hurts)'으로 정의한 Uzzell과 Ballantyne(1998)은 해당 유산이 방문객들에게 감정적 고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방문객들이 과거의 사건을 깊이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석과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방문객들이 교육적,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Lennon과 Foley(2001), Carr(2012) 등의 연구자들도 관광 측면에서 전쟁 유산을 '어두운' 관광/유산('dark' tourism/'dark' heritage) 등으로 정의하면서 '전쟁(어두운) 유산'이 가진 양가적 속성, 즉 부정적 과거의 상흔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전쟁의 사회문화적 영향과 기억, 트라우마 등 무형적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많다. Saunders(2001)는 고고학적 관점에서 전쟁 관련 유산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경관, 물질, 기억, 순례, 유산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제1차 세계대전의 유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재해석되어 왔는지를 분석한 그는 서부전선(The Western Front)이라는 물리적 장소에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억, 정체성, 유산이 교차하는 다층적인 경관으로 재해석하

였다. 저자는 상징적 경관(symbolic landscapes)이라는 개념을 통해 전쟁 유산의 복합적 성격을 조명하였다. 그는 전쟁과 직접 관련된 유물뿐 아니라, 전쟁의 기억, 기억을 간직한 사물과 장소까지 모두 전쟁 관련 유산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전쟁 유산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물질문화 연구와의 접점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eskell(2002)은 '부정적 유산(Negative Heritage)' 개념을 중심으로 전쟁, 학살, 식민주의 등 인류의 부정적 역사와 관련된 유산을 다룬다. 그는 전쟁이나 학살 등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그 부정적 기억을 간직하게 되고, 이것이 해당 공동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 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그것이 현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전쟁이나 폭력의 기억을 간직한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전쟁 유산을 단순히 과거의 잔재로 보는 것을 넘어, 현재 사회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해석되며 활용되는지에 주목하여 정의한 연구들이 있다. Tunbridge와 Ashworth가 '불협화음 유산'이라고 부르는 것의 하위 범주로 '바람직하지 않은 유산(undesirable heritage'라는 개념을 제시한 Macdonald(2006)는 이러한 유산이 단순히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현재의 정체성과 역사 인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인 존재, 과거와 현재의 매개체라고 본다. Logan과 Reeves(2008)는 '불편한 유산(difficult heritage)'이라는 개념을 통해 전쟁과 관련된 유산이 가진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윤리적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고통과 치욕의 유산(places of pain and shame)'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들은 전쟁과 관련된 부정적 기억의 장소들이 문화유산으로서 인식되고 관리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를 통해 전쟁 관련 유산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부정적 유산을 직시하고 극복해나가는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Gegner와 Ziino(2012)는 '전쟁 관련 유산(the heritage of war)'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기억의 정치학에 주목하였다. 전쟁 유산이 전쟁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끊임없이 유형 및 무형 유산으로 변모하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구축되는 전쟁 유산의 역사를 밝혀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산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재구성됨을 주장한다. 이들은 전쟁 유산이 국가와 사회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기억의 갈등과 왜곡을 낳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Sørensen과 Viejo-Rose(2015)는 전쟁과 문화유산의 관계를 탐구하며, '분쟁 유산(conflict heritage)'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전쟁이나 분쟁과 관련된 유산 자체의 물리적 속성보다는, 그 유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논쟁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분쟁 유산은 장소, 사람, 사건 등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한다. 따라서 분쟁 유산은 과거의 사실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최근에는 전쟁 관련 유산을 평화 구축과 연계하려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 Giblin(2014)은 갈등 후 유산(post-conflict heritage)이 사회 공동체에서 상징적 치유와 문화적 갱신 역할을 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저자는 갈등 후 유산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집단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적 화해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Wollentz(2017)는 보스니아 내전의 상흔이 남아있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장소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고 '고향을 만드는 과정(making of home)'을 유산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유산을 통해 형성되는 소속감(belonging)의 시간성(temporalities)에 주목하면서, 내전의 유산을 화해와 치유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며 전쟁 유산의 평화적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2020년에

그는 저서 『Landscapes of Difficult Heritage』에서 '불편한 유산(difficult heritage)'의 개념을 사용하여 해당 유산이 상기시키는 과거의 부정적 사건 때문에 현재 사회가 다루기 어려워하거나 외면하고 싶어 하는 유산을 정의하였다. 동시에 그는 불편한 유산이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하게 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유산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에서 역시 전쟁 관련 유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산 보호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1990년대 이후, 전쟁 관련 유산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보호의 차원을 넘어, 전쟁, 학살 등 부정적 사건의 상흔을 간직한 유산이 가진 복합적인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2015년 일본의 강제동원 사실 인정과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등재 이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 갈등 소지를 가진 유산(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s)'을 둘러싼 논의가 두드러졌다. 유네스코는 이를 '갈등기억유산'이라 번역하며 "20세기 이후 (역사적)갈등과 관련된 장소뿐만 아니라, 갈등 발생 이후 유산화 과정 속에서 기억/역사의 해석 관련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유산"이라 정의하였다((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23: 39).

전쟁 관련 유산의 한 유형인 냉전유산(Cold War Heritage)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의 시기에 형성된 유산을 의미한다. 냉전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 없이 이념,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전개된 특수한 형태의 전쟁이었기에, 냉전유산 역시 물리적 유산뿐 아니라 냉전 체제가 낳은 사회문화적 산물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냉전유산에 대한 초기 연구로는 Cocroft와 Thomas(2003)의 영국 냉전시기 건설된 물리적 시설에 대한 조사, Schofield(2009)의 고고학적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유산에 대한 이론적 논의나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들이 다룬 연구 대상이 냉전 경험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질적 증거라는 점에서 광의의 유산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최근 2022년에는 유럽 전역의 냉전 유산을 보존, 연구 및 홍보하기 위해 '유럽 냉전 유산 네트워크(The European Cold War Heritage Network, ECWHN)'가 설립될 정도로 냉전 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강동진 외(2013)가 '사건형 유산'이라는 개념을 통해, 역사적 사건, 전통, 사상 등과 관련된 증거로서의 유산을 정의하였다. 이들은 사건형 유산이 때로는 인류의 어두운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후대에 교훈을 전달하고 인간 존엄성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앞선 연구를 발판 삼아 김가영과 이선(2016)은 '부정적인 역사'와 이와 관련한 '교훈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억유산'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였다. 이현경(2018)이 전쟁 관련 유산 등 고통과 아픔의 역사 속 기억의 유산을 지칭하는 문화유산 용어를 8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이 유산과 관련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문화유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양상을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해당 용어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갈등기억유산', '불편한 유산', '부정적 유산' 등의 개념은 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유산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러한 유산에 대한 연구는 점차 그 개념적 외연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정적인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유산이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닌, 개인과 사회의 기억, 감정, 정체성과 깊이 연관된 복합적 구성물이자 평화와 화해를 위한 자원으로 전환하려는 관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전쟁 관련 유산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

면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유산 사례를 통해 전쟁 관련 유산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심화시키고자 한다.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유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그 중에는 전쟁과 관련된 유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세계유산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전쟁 관련 유산의 다양한 속성과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세계유산이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통해 전쟁 관련 유산의 개념과 범주를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표 1 전쟁 관련 유산을 지칭하는 유산 용어(이현경 2018;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용어	연구자	주요내용
불협화음의 유산 (Dissonant Heritage)	Tunbridge와 Ashworth (1996)	전쟁 관련 유산을 포함한 부정적이거나 논란이 되는 유산을 설명하는 개념. 유적지, 기념물, 박물관 등이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기억과 해석을 내포하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강조.
상처를 주는 유산 (Heritage That Hurts)	Uzzell과 Ballantyne (1998)	전쟁, 학살, 노예제, 식민주의 등 부정적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유산. 방문객에게 감정적 고통을 줄 수 있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방문객이 과거 사건을 깊이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석과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
어두운 관광/유산 (Dark Tourism/Heritage)	Lennon과 Foley (2001), Carr (2012)	전쟁 유산을 '어두운 관광/유산'으로 정의. 전쟁 유산이 부정적 과거의 상흔이자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는 양가적 속성이 있음을 주장.
상징적 경관 (Symbolic Landscapes)	Saunders (2001)	고고학적 관점에서 전쟁 관련 유산을 포괄적으로 정의. 제1차 세계대전의 유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재해석되었는지 분석. 서부전선에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부여하며, 기억, 정체성, 유산이 교차하는 다층적 경관으로 재해석. 전쟁 유산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물질문화 연구와의 접점 넓힘.
부정적 유산 (Negative Heritage)	Meskell (2002)	전쟁, 학살, 식민주의 등 인류의 부정적 역사와 관련된 유산. 부정적 기억이 해당 공동체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해석과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현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성을 강조.
냉전 유산 (Cold War Heritage)	Cocroft와 Thomas (2003), Schofield (2009)	냉전 시대(1947~1991년) 이념 대립과 갈등, 경쟁을 보여주는 유산
바람직하지 않은 유산 (Undesirable Heritage)	Macdonald (2006)	'불협화음 유산'의 하위 범주로 제시. 이러한 유산이 단순히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현재의 정체성과 역사 인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 존재로 인식.
불편한 유산 (Difficult Heritage)	Logan과 Reeves (2008)	전쟁 관련 유산의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논쟁과 윤리적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분석. 전쟁과 관련된 부정적 기억의 장소들이 문화유산으로서 인식되고 관리되어야 함을 역설.
전쟁 유산 (Heritage of War)	Gegner와 Ziino (2012)	전쟁 관련 유산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기억의 정치학에 주목. 전쟁 유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유형 및 무형 유산으로 변모하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구축되는 과정을 밝혀냄. 현재까지도 유산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재구성됨을 주장.
갈등 후 유산 (Post–Conflict Heritage)	Giblin (2014)	갈등 후 유산이 사회 공동체에서 상징적 치유와 문화적 갱신 역할을 하는 방식에 주목. 역사적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집단 정체성을 확인하며, 사회적 화해를 촉진하는 방법을 설명.
분쟁 유산 (Conflict Heritage)	Sørensen과 Viejo–Rose (2015)	전쟁이나 분쟁과 관련된 유산의 물리적 속성보다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논쟁에 초점을 맞춘 개념. 분쟁 유산은 과거의 사실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
고향 만들기 (Making of Home)	Wollentz (2017)	보스니아 내전의 상흔이 남아 있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장소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고 '고향 만들기 과정'을 유산의 관점에서 탐구. 유산을 통해 형성되는 소속감의 시간성에 주목하며, 내전의 유산을 화해와 치유의 수단으로 활용.
갈등기억유산 (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s)	UNESCO (2018)	20세기와 21세기에 발생한 전쟁, 전투, 학살 등의 부정적인 사건과 관련된 장소를 의미. 이 용어는 갈등의 기억이 유산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를 이루는 경우를 가리키며, 해당 기억이 유산과 직접적이고 실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
불편한 유산 (Difficult Heritage)	Wollentz (2020)	고통, 수치심, 불편함 등의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유산을 의미. 유산이 상기시키는 과거 부정적 사건 때문에 현재 사회가 다루기 어려워하거나 외면하고 싶어 하는 유산을 지칭. 동시에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하게 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
사건형 유산	강동진 외 (2013)	역사적 기억으로서의 주요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념과 관련한 증거로서의 유산. 인류의 어두운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후대에 교훈을 전달하고 인간 존엄성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장소
기억유산	김가영 · 이선 (2016)	"부정적인 역사"와 이와 관련한 "교훈적 가치"를 지닌 유산. 부정적인 역사적 사건의 증거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에 저항 또는 극복하려 노력했던 인간정신을 기념하는 교훈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산을 포함.
불편문화유산	이현경 (2018)	고통과 아픔의 역사 속 기억의 유산을 지칭하는 선행연구의 문화유산 용어들 중 '불편문화유산'이 유산과 관련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문화유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양상을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

Ⅲ. 세계유산 사례를 통해 본 전쟁 유산 개념

1. 대상 유산 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서 전쟁과 관련된 유산을 추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먼저, 세계유산의 고유 번호, 명칭, 설명, 위치, 등재 기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을 Excel 형식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웹사이트에서 수집하였다. 전쟁과 관련된 유산을 식별하기 위해 war, battle, conflict, fort, siege, holocaust, massacre, memorial, battlefield, military, invasion, defense, fortification, bastion, war-related, reconstruction, bombing, resistance 등의 키워드를 선정하여 선정된 키워드가 유산의 명칭이나 설명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필터링을 수행하였다. 단,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자연유산의 성격이 강한 유산, 위험에 처한 유산은 제외하였고, 노예무역과 식민지배와 연관된 유산(예:Archaeological Site of Carthage)도 제외하였다. 노예무역, 식민지배 등은 폭력과 착취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전쟁 관련 유산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또는 집단 간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동반한 전쟁에 초점을 맞추어 선별하고자 하였다. 전쟁 유산의 속성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중요성에 기반하여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예: St. Mary's Cathedral and St. Michael's Church at Hildesheim), 유산의 일부만 전쟁 유산의 속성을 지니는 유산(예: Fort and Shalamar Gardens in Lahore)도 제외하였다. 성곽도시라 해도 방어 기능보다는 종교나 상업의 중심지 기능이 강조된 경우는 제외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18개의 유산이 선정되었으며, 전쟁이나 군사시설과의 관련성,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전쟁 관련 내용이 직접 언급된 유산이 선정되었다.

표 2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중 전쟁 관련 유산 목록

	유산명(영문)	등재기준	등재연도
1	두브로브니크 옛 시가지(Old City of Dubrovnik)	(i)(iii)(iv)	1979
2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 및 집단 학살 수용소(1940~1945) (Auschwitz Birkenau GermanNaziConcentrationandExterminationCamp(1940–1945))	(vi)	1979
3	바르샤바 역사 지구(Historic Centre of Warsaw)	(ii)(vi)	1980
4	파나마의 카리브 연안 요새: 포르토벨로, 산 로렌소 (Fortifications on the Caribbean Side of Panama: Portobelo–San Lorenzo)	(i)(iv)	1980
5	룩셈부르크 중세 요새 도시(City of Luxembourg: its Old Quarters and Fortifications)	(iv)	1994
6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원폭 돔)(Hiroshima Peace Memorial (Genbaku Dome))	(vi)	1996
7	암스테르담 방어선(Dutch Water Defence Lines)	(ii)(iv)(v)	1996
8	로타스 요새(Rohtas Fort)	(ii)(iv)	1997
9	카르카손 역사 요새 도시(Historic Fortified City of Carcassonne)	(ii)(iv)	1997
10	브림스톤 힐 요새 국립공원(Brimstone Hill Fortress National Park)	(iii)(iv)	1999
11	마사다(Masada)	(iii)(iv)(vi)	2001
12	모스타르 옛 시가지의 다리(Old Bridge Area of the Old City of Mostar)	(vi)	2005
13	르 아브르, 오귀스트 페레가 재건한 도시(Le Havre, the City Rebuilt by Auguste Perret)	(ii)(iv)	2005
14	보방의 요새시설(Fortifications of Vauban)	(i)(ii)(iv)	2008
15	비키니 환초 핵실험지(Bikini Atoll Nuclear Test Site)	(iv)(vi)	2010
16	엘바스 요새 도시와 방어시설(Garrison Border Town of Elvas and its Fortifications)	(iv)	2012
17	제1차 세계대전의 장례와 추모 유산 (Funerary and memory sites of the First World War (Western Front))	(iii)(iv)(vi)	2023
18	냐마타, 무람비, 기소지, 비세세로의 르완다 대학살 기념 유적 (Memorial sites of the Genocide: Nyamata, Murambi, Gisozi and Bisesero)	(vi)	2023

2. 유형별 사례 분석[2]

1절에서 제시한 전쟁 관련 유산의 선정 기준과 과정을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선별된 18개의 세계유산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은 전쟁의 역사와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며, 동시에 군사 건축 및 기술의 발전상을 보여준다. 두 번째 유형은 전쟁 중 자행된 대학살, 강제 수용, 핵실험 등 인류에 대한 잔혹 행위가 발생한 현장이자, 이를 기억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산들로서 전쟁의 비극과 폭력성을 일깨우며 반성과 화해, 평화를 향한 인류의 노력을 상징한다.

세 번째 유형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졌으나 이후 재건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도시들이 해당된다. 이들 사례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형 분류를 통해, 전쟁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남긴 다양한 유산의 스펙트럼과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전쟁의 물리적 흔적과 군사적 요새

전쟁의 물리적 흔적과 군사적 요새 유형에 해당하는 유산은 과거 전쟁의 물리적 증거로서 군사 요새, 방어시설 등의 형태로 남아있다.

이 유형의 유산들은 전쟁 관련 유산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요새', '방어선' 등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아군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따라서 이 유산들의 입지, 구조, 재료, 규모 등에는 당대의 군사 전략과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 중세 요새 도시는 험준한 지형을 이용한 요새

표 3 전쟁의 물리적 흔적과 군사적 요새에 해당하는 세계유산 목록

구분		전쟁의 물리적 흔적과 군사적 요새 해당 유산
1	유산명	파나마의 카리브 연안 요새: 포르토벨로, 산 로렌소(Fortifications on the Caribbean Side of Panama: Portobelo–San Lorenzo)
	등재 기준	(i) 포르토벨로와 산 로렌조 요새는 스페인 방어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군사 건축의 걸작에 해당된다. (iv) 이 유산은 17~18세기 상업 루트를 따라 건설된 스페인 식민지 요새의 뛰어난 사례이다.
	특징	16~18세기 '대항해 시대'를 특징짓는 제국주의 전쟁과 식민주의 경쟁 속에서 생겨난 전형적인 전쟁 유산. 스페인 왕실이 대서양 무역로를 보호하고 식민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건설한 방어 체계의 핵심 요소로, 당시 군사 전략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
2	유산명	룩셈부르크 중세 요새 도시(City of Luxembourg: its Old Quarters and Fortifications)
	등재 기준	(iv) 룩셈부르크 구시가지와 요새는 16~19세기 유럽의 중요한 요새도시이자, 군사건축의 걸작이다.
	특징	베네룩스 3국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천혜의 요새도시로, 30년 전쟁, 나폴레옹 전쟁, 프러시아–프랑스 전쟁 등 근대 유럽의 주요 전쟁 때마다 군사적 요충지로 주목받았던 곳. 유네스코는 "근대 초 유럽의 강대국들이 선점하려 했던 군사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려는 유럽 강대국들의 각축장이었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평화 정착의 기반이 된 도시"로 평가.
3	유산명	암스테르담 방어선(Dutch Water Defence Lines)
	등재 기준	(ii) 성곽 도시 및 군사 방어 체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iv) 물을 이용한 방어 체계 기술의 탁월한 사례이다. (v)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군사 방어와 민간 점유 지역을 통합한 토지 이용의 탁월한 사례이다.
	특징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운용된 독창적인 군사 방어 시스템으로, 땅을 침수시켜 적의 진격을 막는 방식으로 광역 방어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군사 전략의 혁신으로 평가. 동시에 전쟁의 기억이 평화로운 지역 경관으로 스며들어 형성한 문화경관이기도 하며, 평화의 자산으로 승화시키려는 네덜란드 사회의 노력이 깃든 유산
4	유산명	로타스 요새(Rohtas Fort)
	등재 기준	(ii)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 군사 건축의 교류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iv) 16세기 무굴제국 요새 건축의 독보적 사례이다.
	특징	16세기 무굴 제국 시기의 대규모 군사 요새. 등재문서에서도 Rohtas Fort가 16세기 중앙 및 남아시아 지역의 무슬림 군사 건축을 대표하는 사례이며, 터키와 인도 아대륙의 건축 및 예술 전통을 융합해 무굴 건축의 모델을 만들어냈음을 강조.

2 이 절에서 기술하는 유산의 특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업로드 되어 있는 세계유산별 등재 문서(Nominations)를 참고하였다.

구분		전쟁의 물리적 흔적과 군사적 요새 해당 유산
5	유산명	카르카손 역사 요새 도시(Historic Fortified City of Carcassonne)
	등재 기준	(ii) 카르카손의 도시 요새는 고대 후기부터 13세기까지 군사 건축 분야에서 일어난 발전 과정을 잘 보여준다. (iv) 카르카손 성채는 중세 도시 방어의 가장 완벽한 예시 중 하나로, 이중 성벽과 보루로 보호되며 53개의 탑과 성문을 갖추고 있다.
	특징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는 군사 건축과 방어 체계의 발전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전쟁 유산 19세기의 Viollet-le-Duc의 대규모 복원 작업은 현대 건축 복원과 보존 분야에 큰 영향.
6	유산명	브림스톤 힐 요새 국립공원(Brimstone Hill Fortress National Park)
	등재 기준	(iii) 브림스톤 힐 요새는 17~18세기 카리브해 지역의 식민 세력 간 각축을 보여주는 독보적 증거이다. (iv) 브림스톤 힐 요새는 17~18세기 군사 건축의 걸작으로, 요새 건설의 모든 발전 양상을 한 곳에서 보여준다.
	특징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까지 카리브해 지역 패권을 놓고 벌어진 영국과 프랑스의 군사적 대결을 상징하는 기념물 카리브해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충돌이 투영된 전쟁 유산이자, 당대 군사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건축유산으로서 큰 의미. 영국과 프랑스의 각축, 그리고 식민지 쟁탈전의 역사를 응축한 장소
7	유산명	마사다(Masada)
	등재 기준	(iii) 로마 제국에 맞선 유대인들의 저항을 상징하는 유적이다. (iv) 1세기 로마 공성전의 방어 시설과 군사 캠프가 매우 잘 보존된 사례이다. (vi) 유대인들의 집단 자결이 있었던 장소로, 유대인 정체성과 자유에의 열망을 상징한다.
	특징	로마 제국과 유대인 저항세력 간의 전쟁사를 증언하고, 당시의 군사 기술과 방어 체계를 잘 보여주며, 나아가 유대인들의 민족 정신을 상징하는 장소로서의 전쟁 유산. 오래전 벌어진 전쟁의 기억뿐 아니라,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치 · 사회적 긴장 관계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발휘.
8	유산명	보방의 요새시설(Fortifications of Vauban)
	등재 기준	(i) 17세기 요새 건축 분야의 걸작이자 그 이후 요새 건축의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인류의 창의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역작이다. (ii) 오늘날까지도 요새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방식 축성법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한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iv) 성채, 성곽도시, 위성 방어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총체적 방어 시스템을 통해 17~18세기 군사 기술과 요새 건축의 진수를 보여준다.
	특징	17~18세기 유럽의 군사 기술과 전략이 반영된, 다양한 유형의 전쟁 관련 시설들로 구성. 오직 전쟁과 방어를 목적으로 건설된 유산이라는 점에서, 전쟁 유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는 사례.
9	유산명	엘바스 요새 도시와 방어시설(Garrison Border Town of Elvas and its Fortifications)
	등재 기준	(iv) 엘바스는 17~18세기 총포시대 요새 건축의 완벽한 사례이자 국경 방어 도시 계획의 걸작이다.
	특징	16~17세기 유럽에서 성행했던 영토분쟁과 포르투갈 독립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발달한 신개념의 군사도시. 유럽 군사건축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나아가 포르투갈-스페인 국경으로서 엘바스는 양국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상징.

건축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보방의 요새시설은 별모양 요새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어, 17세기 요새 건축의 발전상을 잘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암스테르담 방어선은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운용된 독창적인 군사 방어 시스템으로, 땅을 침수시켜 적의 진격을 막는 방식으로 광역 방어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군사 전략의 혁신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유산은 전쟁의 참상보다는 독창적인 군사 기술과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세계유산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또 다른 사례로, 브림스톤 힐 요새 국립공원은 18세기 카리브 해 지역의 영국과 프랑스 간 각축전의 현장이었다. 이 요새는 자연 지형을 이용한 방어 체계와 더불어,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온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건설되었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와 노예제라는 또 다른 폭력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한 유산 안에서도 중층적인 역사의 층위와 다양한 행위자들의 기억이 교차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전쟁 유산이 단순한 전쟁의 산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구조적 모순까지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유산은 단순히 군사 시설로서의 의미를 넘어, 전쟁의 기억과 트라우마가 응축된 장소이기도 하다. 이 요새와 방어선은 수많은 전투와 공방전의 현장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들 유산은 전쟁의 잔혹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평화의 소중함을 환기시킨다. 나아가 이들 유산은 전쟁을 경험한 공동체의 집단기억의 장소로서, 유산을 보유한 국가의 정체성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동체가 특정 전쟁 유산에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투영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은 마사다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1960~70년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마사다 신화'라 불리는 담론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마사다의 투쟁을 현대 이스라엘이 처한 지정학적 위기와 연결 짓는 민족주의적 해석이다(Ben-Yehuda 1995: 61~96). 강대국들의 적대에 맞선 고대 유대인들의 저항을 현재의 이스라엘-아랍 갈등에 비유함으로써, 이스라엘 국민들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한 것이다. 마사다 유적이 이스라엘 민족정체성의 형성과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다.

한편 이들 유산은 '요새'나 '방어'라는 용어가 함축하는 바와 같이, 전쟁을 공격과 방어의 이분법적 구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쟁의 본질은 '우리'와 '적'의 대결이라기보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유산을 해석할 때에는,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반성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쟁의 물리적 흔적과 군사적 요새 유형의 세계유산은 전쟁 관련 유산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전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2) 전쟁, 잔혹 행위의 기억 및 평화의 메시지

전쟁의 참화와 잔혹 행위를 기록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산들은 인류에게 깊은 성찰과 교훈을 제공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세계유산은 〈표 4〉와 같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홀로코스트의 상징적 공간인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는 유대인, 폴란드인, 집시 등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과 화장 시설에서 학살되고 비인간적 처우와 노동 착취에 시달린 절멸 수용소이다. 이곳은 전쟁이 초래한 극단적 폭력과 반인도적 범죄의 현장인 동시에, 이러한 잔혹한 기억을 경고하고 인간 존엄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훈의 공간으로서 보존되고 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은 핵무기에 의한 전쟁의 극단적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폐허인 동시에, 핵무기 폐기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유산이자 전후 인류가 평화를 모색해온 흔적이 응축된 이 공간은 평화의 상징인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힘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기념물로 평가받는다.

제1차 세계대전의 장례와 추모 유산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배경으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전사자 추모 문화를 보여준다. 이들 유적은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초개인적 희생정신을 기리는 양면적 경향을 보여주며, 근현대적 장례 및 추모 개념의 형성 과정을 증언하는 중요한 전쟁 유산으로 평가된다.

1994년 르완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종학살의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인 르완다 대학살 기념유적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전쟁 유산이다. 인류의 잔혹성에 맞선 기억투쟁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이곳은 인종 차별, 증오, 폭력의 극단적 결과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물인 동시에, 평화와 인권, 관용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훈의 공간으로서, 과거의 아픈 역사로부터 화해와 희망의 메시지를 이끌어내려는 르완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담긴 기억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비키니 환초 핵실험지는 냉전 초기 미국에 의해 행해진 핵실험의 현장으로, 인류에게 핵전쟁의 참화와 군비경쟁의 무의미함을 일깨우는 20세기 전쟁 유산의 대표 사례이다. 이곳은 냉전의 상흔과 전쟁의 기억을 간직한 교훈의 공간인 동시에, 이러한 아픈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려는 국제사회의 염원이 반영된 유산이다. 특히 비키니 환초 핵실험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 초기에 행해진 미국의 핵무기 실험을 상징하는 장소로, 당시 전 세계에 핵무기의 위력과 공포를 각인시켰다. 이는 인류에게 핵전쟁의 참화와 군비경쟁의 무의미함을 일깨우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한편, 냉전의 유산을 평화의 기억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전쟁과 잔혹 행위의 기억을 간직한 유산

표 4 전쟁과 잔혹 행위의 기억 및 평화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세계유산 목록

	전쟁과 잔혹 행위의 기억 및 평화의 메시지 해당 유산	
1	유산명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 및 집단 학살 수용소 (1940~1945) (Auschwitz Birkenau German Nazi Concentration and Extermination Camp (1940–1945))
	등재 기준	(vi)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는 나치에 의해 자행된 잔혹한 범죄를 상기시키는 기념물이다. 이는 서유럽 문명의 근간이 되는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야만적 행위에 대항하는 경종의 역할을 한다. 아울러 세계 평화의 기반이 되는 관용과 인간 존엄성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특징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홀로코스트의 상징적 공간으로, 유대인, 폴란드인, 집시 등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과 화장 시설에서 학살되고 비인간적 처우와 노동 착취에 시달린 절멸 수용소. 유네스코는 이곳이 전쟁이 초래한 극단적 폭력과 반인도적 범죄의 현장인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서 이러한 잔혹한 기억을 경고하고 인간 존엄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훈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2	유산명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원폭 돔) (Hiroshima Peace Memorial (Genbaku Dome))
	등재 기준	(vi) 핵무기의 파괴적 힘을 상징하는 동시에, 평화에 대한 강력한 호소이자 인류의 가장 극단적인 고통을 대변하는 상징물이다.
	특징	핵무기에 의한 전쟁의 극단적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폐허인 동시에, 핵무기 폐기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운동의 상징적 공간.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유산이자 전후 인류가 평화를 모색해온 흔적이 응축된 이 공간은 평화의 상징인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힘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기념물로 평가
3	유산명	제1차 세계대전의 장례와 추모 유산 (Funerary and memory sites of the First World War (Western Front))
	등재 기준	(iii)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예외적으로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iv) 장례 및 기념 건축의 발전 과정에서 하나의 결정적 단계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로, 이전까지와는 다른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추모 방식을 구현한다. (vi) 제1차 세계대전의 충격과 이로 인한 거대한 사상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살아있는 기억 문화로 남아있는 곳으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인류 공동의 열망을 보여준다.
	특징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배경으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전사자 추모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초개인적 희생정신을 기리는 양면적 경향을 보여주며, 근현대적 장례 및 추모 개념의 형성 과정을 증언하는 중요한 전쟁 유산으로 평가
4	유산명	냐마타, 무람비, 기소지, 비세세로의 르완다 대학살 기념 유적 (Memorial sites of the Genocide: Nyamata, Murambi, Gisozi and Bisesero)
	등재 기준	(vi) 20세기 후반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르완다 대학살의 기억과 직결된 장소로, 이 사건의 실상과 교훈을 후대에 전하는 데 있어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한다. 대학살의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이곳을 방문해 추모하고 성찰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특징	1994년 르완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종학살의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으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전쟁 유산. 인류의 잔혹성에 맞선 기억투쟁의 상징으로 평가 인종 차별, 증오, 폭력의 극단적 결과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물인 동시에, 평화와 인권, 관용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훈의 공간으로서, 과거의 아픈 역사로부터 화해와 희망의 메시지를 이끌어내려는 르완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담긴 기억투쟁의 상징
5	유산명	비키니 환초 핵실험지 (Bikini Atoll Nuclear Test Site)
	등재 기준	(iv) 비키니 환초 핵실험장은 현대 사회를 특징짓는 냉전과 핵무기 경쟁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예증하는 뛰어난 사례이다.
	특징	냉전 초기 미국에 의해 행해진 핵실험의 현장으로, 인류에게 핵전쟁의 참화와 군비경쟁의 무의미함을 일깨우는 20세기 전쟁 유산의 대표 사례. 이곳은 냉전의 상흔과 전쟁의 기억을 간직한 교훈의 공간인 동시에, 이러한 아픈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려는 국제사회의 염원이 반영된 유산

들은 인류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전쟁의 참혹함과 폭력의 극단적 결과를 직시하게 함으로써, 이들 유산은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훈의 장으로 기능한다. 나아가 이러한 트라우마틱(traumatic)한 기억의 공간을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전환하려는 국제사회와 해당 국가들의 노력은 전쟁 유산의 평화적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3)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의 복구와 재건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의 복구와 재건 유형에 속하는 세계유산으로는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바르샤바 역사지구, 모스타르 구시가지와 옛 다리, 르 아브르 등이 있다. 이들 도시는 모두 전쟁의 참화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이후 국제사회와 해당 국가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복원을 이뤄낸 곳들이다.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방어 체계와 전투의 흔적을 간직한 도시로, 특히 1991~1992년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당시 세르비아군의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전쟁 후 유네스코 주도로 복원사업이 진행된 이 도시는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재건을 이룬 곳으로서,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 된 전쟁 유산이다.

표 5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의 복구와 재건에 해당하는 세계유산 목록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의 복구와 재건 해당 유산	
1	유산명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Old City of Dubrovnik)
	등재 기준	(i)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는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완성된 중세 도시 건축물 군으로, 뛰어난 순결함을 보여준다. (iii) 두브로브니크는 달마티아 연안 공화국의 번영을 증언하는 기념비적인 장소이다. (iv)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의 성벽, 요새, 탑은 아드리아해 연안의 요새 건축의 걸작이다. 이는 중세 후반부터 17세기까지의 요새화에 걸친 발전 단계들을 보여준다.
	특징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방어 체계와 전투의 흔적을 간직한 도시로, 특히 1991~1992년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당시 세르비아군의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곳. 전쟁 후 유네스코 주도로 복원사업이 진행된 이 도시는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재건을 이룬 곳으로서,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 된 전쟁 유산
2	유산명	바르샤바 역사 지구 (Historic Centre of Warsaw)
	등재 기준	(ii) 바르샤바 역사 지구는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중부 유럽의 도시 발전을 증언하는 탁월한 사례이다. 특히 18세기 후반, 19세기, 20세기 초반의 역사 단계별 발전을 한 도시에서 잘 보여준다. (vi) 바르샤바 역사 지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 의도적으로 파괴되었다. 1944년 바르샤바 봉기를 계기로 도시의 85%가 철저히 파괴되었지만, 전후 전체 국민의 노력으로 체계적으로 복구되었다. 이는 전쟁의 참화로 파괴된 문화유산의 모범적 복원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징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보복으로 건물의 85%가 파괴되었으나, 전후 폴란드 정부와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완벽하게 복원된 곳. 전쟁의 잔혹함과 이에 맞선 폴란드인들의 투지, 그리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상징하는 이 유산은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가 부활한 기적의 현장이자 평화의 상징
3	유산명	모스타르 옛 시가지의 다리 (Old Bridge Area of the Old City of Mostar)
	등재 기준	(vi) 모스타르의 구시가지와 옛 다리는 다민족 공동체의 상호 문화성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국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의 가치를 지녔다.
	특징	문화적, 종교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공동체의 공존을 상징하는 도시로, 보스니아 내전으로 파괴되었다가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복원. 전쟁의 상처와 평화 공존의 메시지를 동시에 간직한 곳으로, UNESCO가 주도한 문화유산 복원을 통해 분쟁 후 화해와 재건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전쟁 유산
4	유산명	르 아브르, 오귀스트 페레가 재건한 도시 (Le Havre, the City Rebuilt by Auguste Perret)
	등재 기준	(ii) 르 아브르는 20세기 도시 계획에 있어 상징적인 사건인 전후 도시 재건의 탁월한 사례를 보여준다. 이는 전통과 현대성의 결합, 그리고 사회적 포용력을 입증하는 유산이다. (iv) 오귀스트 페레가 재건한 도시는 20세기의 혁신적인 도시 계획 기술의 탁월한 사례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콘크리트의 새로운 활용 방식, 건축 모듈의 혁신적 사용, 그리고 전통 기술을 응용한 조경 기법 등이 포함된다.
	특징	2차 세계대전의 폭격으로 파괴된 후, 오귀스트 페레의 계획에 따라 모더니즘 건축 양식과 혁신적 도시계획 원칙을 적용해 재건된 곳이다. 이 도시는 전후 유럽의 도시 재건 노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20세기 건축과 도시계획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전쟁 유산으로 평가

바르샤바 역사지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보복으로 건물의 85%가 파괴되었으나, 전후 폴란드 정부와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완벽하게 복원된 곳이다. 전쟁의 잔혹함과 이에 맞선 폴란드인들의 투지, 그리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상징하는 이 유산은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가 부활한 기적의 현장이자 평화의 상징이다.

모스타르 구시가지와 옛 다리는 문화적, 종교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공동체의 공존을 상징하는 도시로, 보스니아 내전으로 파괴되었다가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복원되었다. 이 도시는 전쟁의 상처와 평화 공존의 메시지를 동시에 간직한 곳으로, 유네스코가 주도한 문화유산 복원을 통해 분쟁 후 화해와 재건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전쟁 유산이다.

르 아브르 도시는 2차 세계대전의 폭격으로 파괴된 후, 오귀스트 페레의 계획에 따라 모더니즘 건축 양식과 혁신적 도시계획 원칙을 적용해 재건된 곳이다. 이 도시는 전후 유럽의 도시 재건 노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20세기 건축과 도시계획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전쟁 유산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의 복구와 재건 사례들은 전쟁의 상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준다. 이들 도시는 단순히 물리적 재건을 넘어,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을 모색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났다. 전쟁의 아픔을 간직하면서도 화해와 상생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이들 유산은, 폭력과 분쟁을 극복하고 평화를 구축하려는 인류 공동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사례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보여

주는 모범이 된다. 전쟁으로 훼손된 문화유산의 복원이야말로 인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역사의 교훈을 후대에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두브로브니크, 바르샤바, 모스타르, 르 아브르 등의 도시는 전쟁 유산의 평화적 활용이 가진 의의와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세계유산 사례 분석을 통해 전쟁 유산 유형별로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전쟁 유산에 내포된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전쟁의 기억과 트라우마,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 그리고 교육적 활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전쟁 유산의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Ⅳ. 세계유산 사례 분석을 통한 전쟁 유산 의미 해석

본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세계유산 사례들을 바탕으로 전쟁 유산에 내포된 의미를 다각도로 해석하고자 한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전쟁 관련 유산들은 단순한 역사적 증거를 넘어 복합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쟁의 기억과 트라우마의 복합적 표상

전쟁 유산은 단순히 전쟁의 물리적 흔적만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경험한 개인과 공동체의 기억, 정서,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투영된 공간이다. 세계유산 사례 분석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전쟁 유산은 다양한 층위에서 전쟁의 기억과 트라우마를 표상하고 있다.

우선 전쟁 유산은 전쟁의 물리적 흔적과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적 유산이다. 피폭 건물의 잔해, 포격으로 훼손된 성벽, 학살 현장의 유해 등은 전쟁의 참혹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각적 자료이다. 예를 들어,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의 성벽과 건물들에 남아있는 포탄 자국들은 전쟁의 폭력성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물리적 공간은 전쟁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그 속에서 고통받은 이들을 추모하게 한다. 나아가 전쟁의 폐허는 인간의 폭력성과 파괴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한다.

한편 전쟁 유산은 특정 국가와 민족의 집단 기억과 정체성이 투영된 공간이기도 하다. 그 예로 마사다 요새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한 공동체가 전쟁의 기억을 민족적 저항과 도전의 상징으로 승화하고, 이를 현재적 위기 대응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쟁 유산이 집단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면서, 그 이면에 내재한 트라우마를 은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전쟁 유산은 전쟁을 겪은 개인과 공동체의 트라우마가 응축된 공간이다. 생존자의 고통스러운 기억,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 가해와 피해가 뒤섞인 이들의 복잡한 감정 등 전쟁의 트라우마는 개별적이면서도 집단적이다. 이러한 트라우마에 주목하는 것은 전쟁이 남긴 사회심리적 영향과 후유증을 직시하고, 치유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요컨대 전쟁의 기억과 트라우마는 전쟁 유산에 다층적으로 각인되어 있다. 물리적 흔적과 심리적 상흔, 개인의 고통과 집단의 정체성이 교차하는 이 복합적 공간은 전쟁이 남긴 깊은 그림자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로부터 벗어나 치유와 회복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쟁 유산을 단순한 전쟁의 증거가 아닌 성찰과 치유의 매개로 인식하는 것, 이는 전쟁의 기억을 평화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다.

2.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

전쟁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전쟁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살펴본 세계유산 사례들은 전쟁 유산이 어떻게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우선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의 복구와 재건 사례들은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메시지를 발

신하는 전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도시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재건의 과정 자체가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복원된 건축물과 도시 경관은 평화로운 일상의 회복을 상징한다. 또한 이 도시들의 재건 과정에서 두드러진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은 평화 구축을 위한 초국가적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전문가들의 자문, 그리고 이에 호응한 피해 당사국의 노력은 전쟁으로 훼손된 문화유산 복원이 평화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전쟁 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국제 평화 질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나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같은 전쟁 유산은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염원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이들 유산은 전쟁의 최악의 순간을 증언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강력히 발신한다. 전쟁의 아픈 기억을 직시하고 성찰하게 함으로써, 이들 공간은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평화와 화해의 유산'으로 기능한다.

이상의 사례들은 전쟁 유산의 개념이 단순히 전쟁의 물리적 흔적에 국한되지 않으며, 평화와 화해라는 적극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쟁과 평화가 단절된 개념이 아니라, 전쟁의 경험이 평화에 대한 갈망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의 전쟁을 직시하고 그 교훈을 현재에 되살리는 것, 나아가 전쟁의 기억을 평화 구축의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는 전쟁 유산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요컨대 세계유산 사례 분석은 전쟁 유산 개념이 전쟁의 증거를 넘어 평화의 상징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화해와 상생의 메시지 발신,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그리고 전쟁의 기억을 평화 교육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등은 전쟁 유산의 평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실천적 노력을 통해, 우리는 전쟁 유산을 평화 문화의 토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3. 전쟁의 교훈 전달과 평화 교육의 장

전쟁 관련 유산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다. 전쟁의 참상과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전쟁 유산은 평화의 소중함과 갈등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교육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는 전쟁 유산의 개념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넘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 교육의 자원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우선 전쟁 유산은 과거의 전쟁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의 참혹한 현장을 고스란히 간직한 유산들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전쟁의 잔혹성과 폭력성을 직시하게 하고, 이를 통해 평화의 소중함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가령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는 일반적인 의미의 역사 박물관이 아닌, 인류에게 저질러진 가장 큰 범죄 중 하나인 홀로코스트의 만행을 구체적으로 증언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야만적 행위에 대항하는 경종(ICOMOS, 1978)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반성과 성찰의 과정은 전쟁 유산을 평화와 인권 교육의 생생한 교재로 활용할 때 더욱 의미가 있다. 실제로 많은 전쟁 유산 현장에서는 평화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회 등을 통해 전쟁의 교훈을 널리 알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은 원폭의 참화를 전시하고 핵무기 폐기를 호소함으로써, "다시는 히로시마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No More

그림 1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서 제작한 'NO MORE HIROSHIMAS' 기념 스티커(출처: https://www.ecojournal.co.kr/news/view.php?idx=150969).

Hiroshimas.)"는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이는 전쟁의 상흔이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과 메시지로 전환된 대표적 사례이다.

나아가 전쟁 유산을 매개로 한 평화 교육은 시민 참여와 국제 협력을 통해 평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르완다 대학살 기념관에서 볼 수 있듯, 민간단체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교육 활동과 추모행사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odaro 2018: 12~29).

이처럼 세계유산 사례 분석은 전쟁 유산 개념이 전쟁의 물리적 증거를 넘어 평화 교육의 자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반성과 성찰, 평화와 인권의 가치 고양, 그리고 시민 참여와 국제협력 등은 전쟁 유산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자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전쟁 유산을 미래 평화 문화의 토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전쟁 유산 의미의 확장과 재해석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유산 사례 분석을 통해, 전쟁 유산의 의미가 단순히 전쟁의 물리적 흔적이나 역사적 증거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계유산 사례들은 전쟁 유산이 단순한 전쟁의 흔적이 아닌, 평화와 인권, 화해의 가치를 담은 복합적 문화유산임을 보여준다. 3장에서 살펴본 다양한 유형의 전쟁 유산들은 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억과 트라우마의 표상,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 전달, 그리고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 등 다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전쟁 유산은 과거의 기억과 트라우마, 현재의 평화 염원,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교훈과 비전이 복합적으로 투영된 문화유산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전쟁 유산의 의미를 보존과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확장하고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쟁 유산은 비록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지만, 전쟁 유산 역시 한 시대의 삶과 정신을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이다. 따라서 전쟁 유산의 보존과 관리는 물리적 보호를 넘어, 그 속에 내재된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발굴하고 해석하는 문화유산적 접근을 요구한다. 이는 전쟁 유산을 문화다양성의 표현이자 인류 보편적 가치의 구현체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전쟁 유산을 기념과 치유, 화해의 복합체로 바라보게 한다. 전쟁의 고통과 상실을 추모하고 반성하는 기념의 장소,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치유를 도모하는 회복의 공간, 그리고 화해와 상생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평화의 플랫폼으로서 전쟁 유산의 다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세계유산 사례에서 보듯, 이러한 다면적 기능은 전쟁 유산이 내포한 평화적 잠재력을 보여준다.

나아가 전쟁 유산은 평화 문화 구축을 위한 적극적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하게 하는 교육의 장,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문화예술 활동의 플랫폼,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제사회가 연대하는 평화 구축 운동의 거점 등 전쟁 유산의 평화적 활용 방안은 다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쟁의 불편하고 부정적인 기억이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전쟁 유산들이 평화 교육 프로그램[3]의 일환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는 유네스코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평화'(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3: 5)를 추구하는 것이며, 유럽연합(EU)의 '문화유산을 통한 평화 구축(Building peace by cultural heritage)'의 이념과도 맥을 같이 한다.

결론적으로 전쟁 유산은 전쟁의 물리적 증거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지하는 '평화유산'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는 보존, 기념, 치유, 화해, 교육 등 다양한 가치가 복합된 문화유산으로서 전쟁 유산의 잠

3 히로시마평화기념관에서는 평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폭 생존자의 증언을 듣는 프로그램과 평화 공원 투어 등을 진행한다. 공원 투어 시 공원 내의 5개의 장소에서 VR 고글을 착용하면, 폭탄 투하의 순간이나, 복구하는 히로시마의 거리 중앙에 있는 것 같은 유사 경험을 할 수 있다.

재력을 인정하고, 이를 평화 문화 형성에 적극 활용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평화유산'으로의 개념 확장은 역사적 맥락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경험은 국제사회에 평화의 중요성을 각인시켰고, 이는 유엔과 유네스코 설립으로 이어졌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는 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이해와 평화를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는 전쟁의 경험이 어떻게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제도로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전쟁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되 미래 평화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전쟁 유산의 새로운 지평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본 연구는 전쟁 관련 유산에 대한 의미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전쟁 관련 유산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18개의 전쟁 유산 사례를 '전쟁의 물리적 흔적과 군사적 요새', '전쟁과 잔혹 행위의 기억 및 평화의 메시지',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의 복구와 재건'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전쟁 유산에 내포된 의미 해석을 시도하였다.

전쟁 유산은 전쟁이나 무력 충돌과 관련된 물질적, 비물질적 유산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겨난 유산뿐만 아니라, 전쟁을 기념하거나 전쟁의 영향을 받은 유산도 포함한다. 사례 분석 결과, 전쟁 유산은 단순히 전쟁의 물리적 증거나 역사적 사료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쟁의 기억과 트라우마, 상흔과 치유, 갈등과 화해 등 복합적인 층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쟁 유산이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평화, 인권, 화해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임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전쟁 유산이 단순한 전쟁의 물리적 흔적을 넘어 평화 문화 형성을 위한 적극적 자원, 즉 '평화유산'의 의미로 확장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는 전쟁 유산이 지닌 과거 성찰, 현재 치유, 미래 교육이라는 다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평화 구축 과정에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요컨대 전쟁 유산은 전쟁의 아픈 기억과 트라우마를 직시하되, 이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희망의 자산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전쟁 유산에 대한 학술 연구와 담론을 심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쟁 유산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전쟁 관련 유산에 내포된 의미를 해석하고, 유형적 자산뿐 아니라 무형적 자산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시각을 제시함에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6.25 전쟁이나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주요 전쟁 관련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쟁 관련 유산에 대한 개념적 고찰에 집중하고 있어, 실제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실적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전쟁 유산 사례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아직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다양한 전쟁 유산의 유형과 범주, 그리고 그들이 지닌 잠재적 가치와 의미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례를 포함하여 등재 과정의 쟁점과 과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24년도 서울대학교 통일 · 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 · 평화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이다.

참고문헌

- 강동진 · 박소현 · 성기진 · 명준영, 2013, 「세계유산의 등재, 그 의미와 보존관리의 현안」, 『도시정보』 374,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 문화재청, 2010, 『우리나라 세계유산 길라잡이』, 문화재청.
- 박재민 · 홍윤순, 2016, 「태릉선수촌의 기억의 장소와 장소성 분석」, 『도시설계』 17(1), 한국도시설계학회.
- 엄현섭, 2019, 「한국전쟁(韓國戰爭) 해외기록 문화유산 자료구축 연구 방법 —구미(歐美)지역 참전전우회 기관지 및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82, 국제어문학회.
-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세계유산 해석 전략 수립을 위한 갈등 세계유산 사례 연구 최종보고서』, 유네스코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23, 『갈등기억유산의 해석을 통한 유산의 확장적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유네스코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3, 『유네스코 유산, 평화를 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정선, 2020,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유엔기념공원의 유산 해석 전략 연구: 벨기에 · 프랑스의 '제1차 세계대전의 장례와 추모 유산'사례를 참고로」, 『문화정책논총』 34(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주남희, 2020, 「「베니스 헌장」(1964)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유럽연구』 38(4), 한국유럽학회.
- 차철욱, 2018, 「한국전쟁기 임시(피란)수도 부산의 재현과 의미」, 『항도부산』 35,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 최재헌, 2022,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유산 해석」,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허수진, 2022,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의 해석과 관리 – 1980년대와 1990년대 조선총독부 청사의 보존과 철거 과정을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43, 한국박물관학회.
- Ben–Yehuda, N., 1995, 『The Masada myth: Collective memory and mythmaking in Israel』,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Carr, G., 2012, 「Examining the memorialscape of occupation and liberation: a case study from the Channel Is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8(2), pp.174~193.
- Cocroft, W.D. & Thomas, R.J.C., 2003, 『Cold War: Building for nuclear confrontation 1946~1989』, English Heritage.
- Gegner, M. & Ziino, B. (Eds.), 2012, 『The heritage of war』, Routledge.
- Giblin, J.D., 2014, 「Post–conflict heritage: symbolic healing and cultural renewal」,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0(5), pp.500~518.
- ICOMOS, 1978, 『ICOMOS Report on Auschwitz–Birkenau.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
- ICOMOS, 2018, 『ICOMOS Discussion Paper on Evaluation of World Heritage Nominations related to 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s』, ICOMOS.
- Lennon, J.J. & Foley, M., 2000, 『Dark tourism: 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 Continuum.
- Logan, W. & Reeves, K. (Eds.), 2008, 『Places of pain and shame: Dealing with 'difficult heritage'』, Routledge.
- Macdonald, S., 2006, 「Undesirable Heritage: Fascist Material Culture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in Nuremberg」,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2(1), pp.9~28.
- Meskell, L., 2002, 「Negative Heritage and Past Mastering in Archaeology」, 『Anthropological Quarterly』 75(3), pp.557~574.
- Nora, P., 1989, 「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émoire」, 『Representations』 26, pp.7~24.
- Saunders, N.J., 2001, 「Matter and memory in the landscapes of conflict: The Western Front 1914~1999」, In B. Bender & M. Winer (Eds.), 『Contested landscapes: Movement, exile and place』, Berg.
- Schofield, J., 2009, 『Aftermath: Readings in the archaeology of recent conflict』, Springer.
- Smith, L., 2006, 『Uses of heritage』, Routledge.
- Sodaro, A., 2018, 『Exhibiting atrocity: Memorial museums and the politics of past violence』, Rutgers University Press.
- Sørensen, M.L.S. & Viejo–Rose, D. (Eds.), 2015, 『War and cultural heritage: Biographies of pl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고문헌

- Tunbridge, J.E. & Ashworth, G.J., 1996, 『Dissonant heritage: The management of the past as a resource in conflict』, John Wiley & Sons.
- Uzzell, D. & Ballantyne, R., 1998, 「Heritage that hurts: Interpretation in a postmodern world」, In D. Uzzell & R. Ballantyne (Eds.), 『Contemporary issues in heritage and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Stationery Office.
- Wollentz, G., 2017, 「Making a home in Mostar: Heritage and the temporalities of belong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3(10), pp.928~945.
- Wollentz, G., 2020, 『Landscapes of difficult heritage』, Palgrave Macmillan.
- "〈르포〉세계 최초 원폭 투하도시 히로시마가 외치는 '평화'". 에코저널. 2024년 8월 7일 접속(https://www.ecojournal.co.kr/news/view.php?idx=150969).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Vol. 57 No. 3, September 2024, pp.202~222.
Copyright©2024,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4.57.3.202

Interpreting the Meaning of War Heritage Through World Heritage Case Studies

LEE Jaei Researcher, Dept. of Spatial & Environmental Planning, ChungNam Institute
SUNG Jongsa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jssung@snu.ac.kr

Abstract

War is one of the most tragic and destructive incidents in human history, and it destroys precious cultural heritage. However, even amidst such devastation, certain cultural heritages convey messages of peace and human right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in-depth interpretation of the significance of cultural heritage related to war.

The research method involved an extensive review of theoretical discussions on war-related heritage. Based on this foundation, 18 cases of war heritage register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were selected. These case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into three categories: "physical traces of war and military fortresses," "memories of war and atrocities, and messages of peace," and "restoration and reconstruction of cities destroyed by war."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war heritage encompasses not only physical evidence of war but also multilayered and complex meanings such as the memories and traumas of war, scars and healing, and conflict and reconcili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that war heritage should be reinterpreted and expanded to represent a "heritage of peace" and transcend its role of only including physical traces of war to embody the values of peace. This demands a shift in perception that confronts the painful memories of war while transforming them into assets for building peace. Furthermore, it urges the active exploration of ways to utilize war heritage for peaceful purposes.

This study distinguishes itself from existing research by deepening the academic discourse on war-related heritage and providing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war-related heritage as World Heritage Sites.

Keywords Conflict Heritage, Negative Heritage, Difficult Heritage, Peace Heritage, War Memories

Received 2024. 6. 20. | **Revised** 2024. 7. 18. | **Accepted** 2024. 8. 7.

CC BY NC ND